

학령 후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보호요인 :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우소연(So Yeon Woo)¹⁾

박경자(Kyung Ja Park)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hildren's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could moderate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80 6th graders (468 boys, 412 gir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ildren reported their daily hassles, school adjustment,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on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who experienced less daily hassles, had higher self-control, and higher sense of humor were well-adjusted in their schools. Children's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moderated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although the moderate effect was weak.

Key Words : 유머감각(sense of humor), 자기통제력(self-control),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 학교 적응(school adjustment).

I. 서 론

스트레스는 어느 특정 발달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영역

에서 경험하게 된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수많은 자극들을 경험하고 있다. 적절한 수준 이상의 자극들은 심적 긴장을 일으키고

* 본 논문은 2008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 Yeon Woo,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babybea@naver.com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성인만의 일이 아니다.

학령기 아동은 인지적·사회적·신체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전이 과정과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애 어느 시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불안, 고통, 짜증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들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Morales & Guerra, 2006),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일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안녕을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민하영·유안진, 1998). 또한 학령기는 스트레스의 가중치가 높은 시기이나,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rios, Porter, & Welch, 1983).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의 성격 발달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해볼 때, 학령기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Attar, Guerra, & Tolan, 1994;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정도의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개인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Kumpfer, 1999). 즉, 개인

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부적응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기도 한다. 이는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의 관계에 완충 혹은 중재효과를 갖는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험이나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돕는 요인을 보호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호요인은 가족과 관련된 것, 가족 외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학교 및 사회와 관련된 것), 아동 개인의 속성과 관련된 것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Garmezy, Masten, & Tellegen, 1984).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보호요인들은 인간의 삶에 공존하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발달이 복합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개인 내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지 만(Bronfenbrenner, 1979),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개인내적인 특성에 의해 환경을 초과하여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즉,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여러 가지 보호요인 중, 아동의 개인 내적인 속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 중, 아동 개인의 속성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변인 중 하나는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력은 청년기 자아존중감을 예측해주는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 자신감 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Harter, 1990). Feldman과 Weinberger(1994)는 자기통제력이 발달된 아동일수록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를 잘하는 아동일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낮으며(문경숙, 2008),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백혜정, 2007).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은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김선희·김경연, 2001)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공격성을 더 많이 보여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박성연·강지훈, 2005)는 연구결과들은 자기통제력이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 중요한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머감각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Martin(2007)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은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약화된다는 스트레스 완충가설(stress-buffering hypothesis)을 제시하였으며, Abel(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머가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Southam(2005)은 유머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또래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으며, McGhee(1989)는 아동이 발달해 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머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위험요소를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대상이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이거나 빈곤

한 가정의 아동으로 제한적이어서, 학령후기의 일반 아동들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적응 및 그와 관련된 보호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불어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은 외국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나(Betts & Rotenberg, 2007;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국내에서는 그 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유머를 보호요인으로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발달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인과 관계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이 완화시키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적응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재 효과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80명으로 남아 468명과 여아 412명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많은 변화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을 앞둔 상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되게 자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Harter, 1982) 질문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 학교당 두 명씩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 대상 아동들의 거주지와 일반적인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 아동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하류층에서 중상류층 가정에 속하였다.

2. 연구 도구

1)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부모관련 스트레스, 소외적 관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피해적 관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개 문항으로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20문항, 소외적 관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 10문항, 학업관련 스트레스 8문항, 피해적 관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 7문항, 교사

관련 스트레스가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8점에서 19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3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 α 는 .73~.89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원도구는 32 문항에 걸쳐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적은 8문항을 제외하고(예.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가 있는 것이 많다’는 중복되는 문항들로 마지막 문항을 삭제하였음) 총 24개의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로 문항 수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영역 모두 6문항씩으로 동일하다.

아동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을 하게 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4점부터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 α 는 .67~.74로 나타났다.

3) 자기통제력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님(2000)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용 자기통제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경님의 자기통제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통제, 교사관련통제의 6개 하위영역에 걸쳐 총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관련성, 중복된 문항과 표현이 모호한 문항 등을 제외하고 2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 자기통제의 하위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으로 2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도구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의 개념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어려우므로 Oblimin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고유치와 문항 성격에 근거하여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사려숙고성(6문항), 과제인내(5문항), 유혹저항(5문항), 정서통제(4문항)로 명명하였다.

아동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6~.73으로 나타났다.

4) 유머감각

아동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재선(2005)이 번역한 Thorson과 Powell(1993)의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 MSH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SHS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총 24문항이며, 유머생성, 대처방법으로서의 유머, 유머의 인지, 유머에 대한 태도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검토한 후 중복 문항 4개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20개 문항에 대해 유머감각의 하위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본 도구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개념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어려우므로 Oblimin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고유치와 문항 성격에 근거하여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원도구에 근거하여 유머의 생성 및 사회적 사용, 유머에 대한 태도, 유머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머감각 측정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유머의 생성 및 사회적 사용 11문항, 유머에 대한 태도 5문항, 유머에 대한 가치인식 4문항이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자기보고식 응답을 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4~.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측정 도구와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 측정 질문지의 문항 이해 정도 및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12월 10일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의 아동 32명(남아 15명, 여아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자기통제력 질

문지 중 13번 문항)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질 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총 40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선정에 위해 서울시 강서구, 성동구, 관악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세 곳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교의 6학년 학급에 연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선정된 4개 학교의 총 31개 학급 중, 협조 요청에 응한 28개 학급의 아동 939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아동들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에 대한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 세 곳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급에 들어가서 아동들에게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 응답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아동이 설문을 작성한 후에 수거하였다. 설문지 수거 시에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결측 문항이나 중복 문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35분 정도였다. 질문지는 660부 배포되었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나머지 한 학교는 교사의 요청에 의해 연구자는 각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과 작성 중, 수거 시 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각 반의 교사들이 직접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수거는 3일 후, 연구자가 학교로 재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279부 중에서 260부가 회수되어 약 9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회수되지 못하거나 결측값 및 복수응답이 있는 59부의 질문지를 제외

하고 880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의 관계에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이 중재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 MR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총점의 평균이 94.24이었으며, 문항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1.96점으로, 이는 1~4점의 4점 척도 중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 아동들은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로 받으며, 친구들과의 소외적 관계나 친구로부터 피해를 받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및 교사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별로 받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총점의 평균이 77.48점이었으며, 이를 1~5점의 5점 척도로 환산한 문항평균 점수는 3.23점으로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 아동들은 교사와 관계된 적응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표 1> 측정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880)

	변인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문항평균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	20~76	40.26(10.72)	2.01(0.54)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적 관계	10~40	15.98(5.84)	1.60(0.58)
	학업관련 스트레스	8~32	19.50(5.90)	2.44(0.74)
	친구관련 스트레스-피해적 관계	7~28	13.22(4.86)	1.89(0.69)
	교사관련 스트레스	3~12	5.26(2.35)	1.75(0.78)
	총점	49~172	94.24(22.63)	1.96(0.47)
학교생활 적응	교사관계	6~30	17.32(4.80)	2.89(0.80)
	교우관계	6~30	21.94(4.61)	3.66(0.77)
	학교수업	8~30	19.42(4.36)	3.24(0.73)
	학교규칙	6~30	18.80(4.42)	3.13(0.74)
	총점	43~116	77.48(13.40)	3.23(0.56)
자기 통제력	사려숙고성	7~30	20.77(4.07)	3.46(0.68)
	과제인내	5~25	14.83(3.86)	2.97(0.77)
	유혹저항	5~25	18.21(4.05)	3.64(0.81)
	정서통제	4~20	13.56(3.03)	3.39(0.76)
	총점	22~100	67.37(10.80)	3.37(0.54)
유머감각	유머의 생성 및 사회적 사용	11~55	33.02(9.92)	3.00(0.90)
	유머에 대한 태도	5~25	20.69(3.33)	4.14(0.67)
	유머의 가치 인식	4~20	12.45(3.69)	3.11(0.92)
	총점	25~100	66.15(13.67)	3.31(0.68)

수준을 보였고, 학교수업과 학교규칙과 관련해서는 중간 이상의 적응수준을 보였으며, 교우와 관계된 적응이 가장 높았다.

자기통제력 총점의 평균 점수는 67.37이었으며, 이를 1~5점의 5점 척도의 문항평균점수로 환산하면 3.37점으로 이는 본 연구대상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중간정도임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의 아동들은 유혹저항에 대해 가장 높은 통제력을 보였고, 사려숙고성과 정서통제도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보였다. 또한 과제 인내는 중간 수준 정도의 통제력을 보였지만 가장 자기 통제가 어려운 하위 영역이었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유머감각 총점의 평균점수는 66.15로 나타났고, 이를 1~5점의 5점 척도

에 해당하는 문항평균점수로 환산하면 3.31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유머감각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특히 유머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총점)는 전체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총점)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r=-.31, p<.01$),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표 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 계수 (N=880)

학교 생활적응 \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관련	친구관련-소외적 관계	학업관련	친구관련-피해적 관계	교사관련	총점
교사관계	-.14**	-.10**	-.13**	-.08*	-.36**	-.18**
교우관계	-.24**	-.52**	-.18**	-.42**	-.18**	-.40**
학교수업	-.19**	-.25**	-.21**	-.20**	-.33**	-.29**
학교규칙	-.07*	-.02	-.05	.04	-.10**	-.05
총점	-.22**	-.29**	-.19**	-.22**	-.33**	-.31**

* $p < .05$ ** $p < .01$

중에서는 교우관계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0, p < .01$).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관련된 적응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4, p < .01$). 또한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적 관계와 피해적 관계)는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관련된 적응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52, r = -.42, p < .01$).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교수업과($r = -.21, p < .01$), 교사관련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r = -.36, p < .01$)와 학교수업($r = -.33, p < .01$)과 관련된 적응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은 전반

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교우관계에서 가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중 특정 하위 영역의 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1)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자기통제력 총점과 학교생활적응의 총점($r = .45,$

<표 3>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N=880)

학교 생활적응 \ 자기통제력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총점
교사관계	.30**	.24**	.18**	.10**	.30**
교우관계	.21**	.20**	.09*	.17**	.23**
학교수업	.36**	.32**	.28**	.17**	.40**
학교규칙	.36**	.32**	.31**	.13**	.41**
총점	.41**	.36**	.29**	.20**	.45**

* $p < .05$ ** $p < .01$

<표 4> 아동의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 분석

(N=880)

학교 생활적응	유머감각	유머의 생성 및 사회적 사용	유머에 대한 태도	유머의 가치 인식	총점
교사관계		.33**	.07*	.27**	.33**
교우관계		.45**	.25**	.33**	.48**
학교수업		.33**	.17**	.29**	.36**
학교규칙		.17**	-.00	.18**	.17**
총점		.44**	.17**	.37**	.45**

* $p < .05$ ** $p < .01$

$p < .01$)과 모든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학교규칙($r = .41$, $p < .01$), 학교수업($r = .40$, $p < .01$)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학교생활적응의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09 \sim .41$). 이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의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유머감각 총점과 학교생활적응의 총점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5$, $p < .01$). 아동의 유머감각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들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교우관계($r = .48$, $p < .01$)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유머감각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유머에 대한 태도와 학교규칙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07 \sim .45$). 특히 유머를 생성하고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은 교우관계를 비롯하여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과 관련된 적응과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유머감각이 높은 것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및 유머감각의 중재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 MRA)을 실시하였다.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의 중재효과를 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회귀식에 상호작용항(자기통제력×스트레스총점, 유머감각×스트레스총점)이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의 VIF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VIF 값이 10을 넘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균집중화를 실시한 후 모든 변인의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값도 0.96~1

<표 5>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검증을 위한 조절회귀 분석 (N=880)

하위변인	단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일상적 스트레스		-.31***	-.24	-.24
자기통제력			.41	.40
일상적 스트레스×자기통제력				-.07*
ΔR^2		.10	.16	.004
R^2			.26	.26
ΔF		93.78***	187.08***	5.03*
F		93.78***	150.37***	102.38***

* $p < .05$ *** $p < .0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1)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는 독립변수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으로 일상적 스트레스가 투입된 회귀식은 유의했으며($F=93.78, p<.001$), 일상적 스트레스는 10%의 설명력을 갖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더불어 중재변수인 자기통제력이 투입된 결과, 이 두 가지 변인이 포함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150.37, p<.001$). 또한 자기통제력이 투입된 후 설명력은 16% 증가하였으며($\Delta F=187.08, p<.001$),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

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중재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일상적 스트레스×자기통제력)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02.38, p<.001$), 회귀식의 설명력은 0.4% 증가하였으며($\Delta F=5.03, p<.05$), 일상적 스트레스($\beta=-.24, p<.001$), 자기통제력($\beta=.40, p<.001$), 상호작용항($\beta=-.07, p<.05$) 모두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음의 베타 값을 나타낸 것은,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재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분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머감각의 중재효과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머감각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는 독립변수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표 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머감각의 증재효과 검증을 위한 조절회귀분석 (N=880)

하위변인	단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일상적 스트레스		-.31***	-.25***	-.24***
유머감각			.42***	.42***
일상적 스트레스×유머감각				-.10**
ΔR^2		.10	.17	.01
R^2			.27	.28
ΔF		93.78***	204.19***	10.95**
F		93.78***	159.84***	111.42***

** $p < .01$ *** $p < .001$

영향을 알아본 것으로 일상적 스트레스가 투입된 회귀식은 유의했으며($F=93.78, p<.001$), 일상적 스트레스는 10%의 설명력을 갖고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더불어 증재변수인 유머감각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두 가지 변수가 포함된 회귀식은 유의하였으며($F=159.84, p<.001$), 회귀식의 설명력이 17% 증가하였고($\Delta F=204.19, p<.001$),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머감각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머감각이 증재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일상적 스트레스×유머감각)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11.42, p<.001$) 회귀식의 설명력은 1% 증가하였으며($\Delta F=10.95, p<.01$), 일상적 스트레스($\beta = -.24, p<.001$), 유머감각($\beta = .42, p<.001$), 상호작용항($\beta = -.10, p<.05$) 모두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때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음의 베타 값을 보여 아동의 유머감각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증재변

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분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하는 반면,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Pryor-Brown & Cowen, 1989).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 두 변인 간의 원인과 결과를 양방향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초기 학교 적응을 잘하며,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백혜정(2007)의 연구, 교사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하고(Fabes et al., 1999), 학업성취가 높은(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잦고(Murphy & Eisenberg, 1997) 공격성과 비행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Krueger, Caspi, Moffitt, White, & Stouthamer-Loeber, 1996)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의 유머감각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유머감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하는 반면, 유머감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머감각이 학습스트레스와 수업의 지루함, 교과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며(Korobkin, 1988). 유머가 학교에서의 지적 유능성과 유능성에 관련된 기술 습득 및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Masten(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유머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경계선을 조절하거나 성, 연령, 지능, 사회경제적인 것이 갖는 의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감소시키고 또래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한 Southam(2005)의 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 크기는 미미하지만 자기통제력이 중재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자기통제력이 우울증상에 대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들(Feldman & Weinberger, 1994;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4)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Kumpfer(1999)가 제시한 탄력성 구조모형 중,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과 관련되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았음에 기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높을수록 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 자체가 중재효과를 보기에 미약했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학교적응의 모든 변인에서 표준편차가 작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변인들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변인 간의 관계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효과를 중재 변인인 자기통제력의 단독 설명력을 넘어 상호작용항의 설명력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머감각의 중재효과는 미미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과 유사하게 유머감각의 중재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유머감각이 우울증상에 대한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며(Nezu, Nezu, & Blissett, 1988),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기존중감과 신경쇠약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Fry, 1995) 및 면역체계에 대한 영향을(Martin & Dobbin, 1988) 중재한다고 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앞에서 언급한 Martin(2007)의 스트레스완충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umpfer(1999)가 제시한 탄력성 구조모형 중,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머감각의 중재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자기통제력의 경우와 유사하다. 연구 대상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던 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유머감각 역시 표준편차가 작은 편이었고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도 자기통제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 및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설명력 증가분이 유의했다는 것은 아동의 유머감각이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유머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일상생활 속에서 유머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이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 내적인 요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개발 및 증진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뜻하며, 본 연구는 추후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유머감각을 조명하고, 유머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 많은 선행 연구 및 이론들을 지지하였다. 유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희 · 김정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문경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의 역할. *아동학회지*, 29(5), 285-299.
- 민하영 ·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성연 · 강지훈(2005). 남 ·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이경님(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재선(2005). 청소년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bel, M. H. (1998). Interaction of humor and gender in moderating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 outcom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3), 267-276.
- Attar, B. K., Guerra, N. G., & Tolan, P. H. (1994). Neighborhood disadvant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s in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4), 391-400.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ts, L. R., & Rotenberg, K. J. (2007). Trustworthiness, friendships and self-control : Factors that contribute to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491-50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Series Ed.), & R. M. Lerner(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5th ed., Vol.1, pp.993-1028). New York : Wiley.
- Compas, B., Malcarne, V., & Fondacaro, K.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Research*, 56(3), 405-411.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 Poulin, R., et al.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1), 195-211.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Fry, P. S. (1995). Perfectionism, humor, and optimism as moderators of health outcomes and determinants of coping styles of women executive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1(2), 211-245.
- Garnezy, N., Masten,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1), 97-111.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 (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292-325). Boston : Allyn & Bacon.
- Korobkin, D. (1988). Humor in the classroom : Considerations and strategies. *College Teaching*, 36(4), 154-158.
- Krueger, R. F., Caspi, A., Moffitt, T. E., White, J., & Stouthamer-Loeber, M. (1996). Delay of gratification, psychopathology, and personality : Is low self-control specific to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64(1), 107-129.
- Kuiper, N. A., Grimshaw, M., Leite, C., & Kirsh, G. A. (2004).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or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7(1/2), 135-168.
- Kumpfer, K. L. (1999). Factors and processes contributing to resilience : The resilience framework. In M. D. Glantz & J. L.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 Positive life adaptations*(pp.

- 179-224). New York : Kluwer academic.
- Martin, R. A. (2007). *The psychology of humor : An integrative approach*. Burlington, MA : Academic Press.
- Martin, R. A., & Dobbin, J. P. (1988). Sense of humor, hassles, and immunoglobulin A : Evidence for a stress-moderating effect of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8(2), 93-105.
- Masten, A. S. (1986). Humor and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2), 461-473.
- McGhee, P. E. (1989). The role of humor in enhancing children's development and adjustment. In P. E. McGhee(Ed.), *Humor and children's development* (pp.249-274). NY : Haworth.
- Mederios, D. C., Por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 How to help with the everyday stresses of childhoo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Morales, J. R., & Guerra, N. G. (2006). Effects of multiple context and cumulative stress on urban children'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7(4), 907-923.
- Murphy, B. C.,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a target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Murray, C. (2003).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adult transitions of youth with high incidence disabilitie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4, 16-26.
- Nezu, A. M., Nezu, C. M., & Blissett, S. E. (1988). Sense of humor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520-525.
- Pryor-Brown, L., & Cowen, E. L. (1989).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3), 214-220.
- Southam, M. (2005). Humor development : An important cognitive and social skill in the growing child.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25(1/2), 105-117.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2월 24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